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네아폴리스 은행 총재, “일자리 급증에 금리 추가인상 필요”
- WSJ: 지난해 미 무역 적자 ‘최대’... 성장세 빨라 국내 수요 증가
- WSJ: 미 소비자, 팬데믹 기간 모은 돈 다 썼다

#### [뉴저지 교육]

- BergenNews: 올가을 리지우드 고교 등교 시간 늦출 듯

#### [주택 시장]

- WSJ: 주택 구매 업체들, 매물 안 팔려 비즈니스 부진

#### [중국 경제]

- The Economist: 중국 “초고속” 경제 회복...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도
- Bloomberg: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가시화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미 소비자, 식료품 비싸 dollar store 찾는다
- CNBC: 아마존, 수요 감소로 항공 화물 줄인다
- WSJ: 메타, 메타버스 앱 Horizon World 개편해 3월 청소년 대상으로 출시
- CNN Business: AI 윤리학자, “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경쟁이 ‘의도치 않은 결과’ 초래할 수도” 경고

#### [보고서]

-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월)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Fed’s Kashkari Says Strong Jobs Data Show Need for More Hikes**

#### **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, “최근 일자리 급증에 금리 추가 인상 필요”**

- Neel Kashkari 총재는 “1월의 강력한 노동 시장 일자리 보고서(50만여개 증가)를 보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했다.
- 그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가 5.4% 언저리에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. 현재 금리는 지난주 0.25% 상승으로 4.75%다.
- 특히 서비스 일자리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WSJ: U.S. Imports Rose in December, Partially Offsetting Weakening Global Trade

### 지난해 미 무역 적자 '최대'... 성장세 빨라 국내 수요 증가

- 작년 12월에 소비재와 자동차 수요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10.5%로 늘었다. 작년 말 글로벌 교역의 약세 상황도 이 때문에 일부 상쇄되었다.
-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적자 폭이 지난해 11월 6백10억불에서 6백74억불로 늘었다.
-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는 9천4백81억달러로 12.2%나 증가해 기록적으로 큰 폭의 적자 폭이다. 국내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.
- 물론 미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증가, 수출도 증가했다.

WSJ 기사

## WSJ: Households Burn Through What's Left of Their Pandemic Savings

### 미 소비자, 팬데믹 기간 모은 돈 다 썼다

-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1월 중순 현재 팬데믹 기간 동안 모아둔 추가 저축의 약 35%를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. 또 올해 말까지 약 65%를 써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.
- 팬데믹 초기에 미국인들은 정부 지원금과 지출 감소에 힘입어 전례 없던 속도로 저축액을 늘렸다. 하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야만 하게 되었다.
- 한편 미국인의 월간 저축률은 2020년 16.8%에서 2022년 3.3%로 크게 떨어졌다가, 올해 4.5%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. 저축을 소진하는 속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빨랐다.

WSJ 기사

### [뉴저지 교육]

## BergenNews: Ridgewood Board of Education set to vote on later high school start for fall

### 올가을 리지우드 고교 등교 시간 늦출 듯

- 해당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올가을부터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하는 타운 법안에 대해 곧 투표할 예정이다.

- 현재는 학교 시간이 7:45 a.m. ~ 3:15 p.m.인데 올해 9월부터는 8:20 a.m. ~ 3:30 p.m.로 늦춘다.
- 한마디로 35분 늦게 등교하고, 15분 늦게 하교하게 되는 것. 우선 고등학교만 시간을 변경토록 추진하고 있다.
- 이 같은 변동은 고등학생들의 수면 패턴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. 캘리포니아는 작년 9월에 등교 시간을 늦추었고, 뉴저지의 경우 테너플라이, 모리스 타운의 Chatham 고교는 이미 실시 중이다.

BergenNews 기사

### [주택 시장]

#### WSJ: Home-Buying Companies Stuck With Hundreds of Houses as Demand Slows

##### 주택 구매 업체들, 매물 안 팔려 비즈니스 부진

- 팬데믹 기간 중에 주택 호황을 누렸던 이른바 ‘주택을 매입해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’ 회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팬데믹 때에는 고객들의 필요성을 즉시 채웠는데, 즉, 주택 판매자들의 요구대로 이들 회사들은 주택을 빨리 매입하고, 모든 현금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해왔다. 대신 수수료를 얹어 매입자들에 판매해 왔다.
- 그러나 초근 모기지율이 치솟으면서 잠재 매입자들이 매입을 주저하고 용자를 위해 대기 상태에 있다 보니 이들 회사들은 대량으로 매입한 주택들을 매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.
- 애틀란타, Charlotte에서 비즈니스를 시행하는 Ribbon Home Inc에는 거의 4백채의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고, 덴버와 댈러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Orchard Technologies Inc에도 2백채의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.

WSJ 기사

### [중국 경제]

#### The Economist: China's ultra-fast economic recovery

##### 중국의 “초고속” 경제 회복...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도

- 중국의 재개장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오히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. 수많은 사람이 빠르게 감염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.
- 중국의 제조업 외 활동지수는 12월 41.6에서 올해 1월 54.4로 상승했는데, 사상 두 번째로 큰 폭이었다. 특히 소매업, 숙박업, 외식업 등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.

- 한편 씨티그룹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은행 예금은 작년 GDP의 100%를 넘는 120조 위안(18조 달러)을 넘고, 이는 앞으로의 “보복 지출”에 더 불을 지필 수 있다. 소비가 늘면 매출이 늘어나고, 고용 시장이 강해지며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의 장작이 될 것이다.
- 따라서 이런 중국의 현상은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.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1% 오를 때, 1~2년 후 세계 GDP는 0.25% 오르는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.
-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3%에서 올해 5~6%로 끌어올려진다면, 세계 GDP는 0.5~0.75%, 연간 기준으로 약 4천억~6천억 달러가 오르게 될 수 있다.
-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회복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. 수요가 늘며 에너지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. 중국의 재개장이 “불편한”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The Economist 기사

### **Bloomberg: America's Pivot to Asia Is Finally Happening**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가시화

- 미국은 외교적으로, 경제적으로, 군사적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.
-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은 인근 오키나와와 괌만 공격하면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. 지정학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.
- 따라서 미국은 현재 보다 탄력적인 대응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. 올해 1월 미국은 오키나와에 해병대 연안 연대(Marine Littoral Regiment)를 창설키로 했다.
- 필리핀에 미 군사력이 5개의 군사 시설에 접근이 용이토록 양국이 합의했다. 그중에 한 군대가 대만의 Luzon 해협 건너편 필리핀 Luzon 북부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인 협의를 구체하고 하고 있는데 제트 엔진, 곡사포, 다른 국방 장비들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, 퀀텀 기술, 5G, 6G 통신 협력 확대를 확대하고 있다.
- 한국과는 중국의 반도체 대응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**CNBC: Amid food inflation, more shoppers turn to dollar stores for groceries****미 소비자, 식료품 비싸 dollar store 찾는다**

- 최근 연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, 식품 가격은 다시 상승했다.
- 작년 한 해 동안 식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10% 이상 올랐는데, 달걀은 무려 60%, 버터는 31%, 상추는 25% 급등했다.
-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부담 없는 dollar store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다. dollar store의 식료품 판매 점유율은 특히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며 상점들도 그에 맞게 냉장고와 식료품 종류를 늘리는 등 리모델링 되고 있다.

CNBC 기사

**CNBC: Amazon scales back cargo flying as demand cools, contractor says****아마존, 수요 감소로 항공 화물 줄인다**

- 아마존이 이번 주 월요일 수요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항공 화물 운송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.
- 아마존 항공 화물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는 ATSG는 아마존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잉 화물기 5대에 대한 임대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.
- 한편 최근 몇 년간 항만 정체와 높은 배송 수요로 인해 급증했던 항공 화물 운임이 폭락했다. The Baltic 항공 화물 지수는 지난달 1월 30일 전년 대비 33% 이상 떨어졌고, 11월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4% 감소했다.

CNBC 기사

**WSJ: Meta to Revamp Horizon Metaverse App, Plans to Open for Teen Use as Soon as March****메타, 메타버스 앱 Horizon World 개편해 3월 청소년 대상으로 출시**

- 메타가 자체 개발 메타버스 Horizon World 앱을 개편해 빠르면 3월 13~17세 사이의 십대들을 대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. 현재 이 앱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.
- 청소년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 분야에서 메타의 가장 큰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. 메타는 Horizon World의 구축을 위해

159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사용자 유지율이 지난 1월 11%에 그쳤다.

- 따라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, 서버 안정화, NBA 등 타사와의 파트너십 확장을 추진하여 사용자 기반을 늘리고 유지할 전략으로 삼을 예정이다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왓츠앱 등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.

WSJ 기사

### CNN Business: Google and Microsoft's AI arms race could have 'unintended consequences,' an AI ethicist warns

AI 윤리학자, “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경쟁이 ‘의도치 않은 결과’ 초래할 수도” 경고

- ChatGPT가 출시와 함께 엄청난 이목을 끌었고,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 구글이 향후 몇 주 안에 이에 대항할 AI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AI를 두고 인터넷 검색 패권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.
- 하지만 Global Deloitte AI Institute의 전무 이사 Beena Ammanath는 “의도치 않은 결과”가 모든 신기술에 수반되기 마련이라며,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.
- 특히 최근의 생성적 AI 모델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. 잘못된 정보를 자신 있게 내놓아 쉽게 퍼뜨린다는 것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### [보고서]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월)

한국은행 보고서 원문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美 고용호황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↑...  
골드만 "침체 가능성 25%"

BofA "올해 경기후퇴 예상...미 디폴트 가능성 대비

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집계되자 미국 경기가 침체를 피해 '연착륙'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.

6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(IB)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사이 미국이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종전 35%에서 25%로 낮췄다.

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과 기업 심리 개선 조짐은 단기간 내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